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7년 4월 28일(금)  
... (율력 4월 3일) ...

Пятница  
28 апреля 2017 г.  
№ 16(116733)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5월 1일 러시아에서는 봄과 노동의 날을 기념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이예식기자 사진첩에서)

## 단신

### 사할린, 테러 준비한 <이슬람국가>테러단체 지지자들 체포

러시아연방 보안국은 러시아에서 금지된 <이슬람국가>테러단체 지지자들 2명을 사할린에서 체포했다.

범죄자들은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테러 음모를 준비해온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체포자 중 한 명은 러시아 국민이고, 다른 한 명은 중앙아시아 나라 국민인 것으로 밝혀졌다.

압수 수색을 할 때 그들의 집에서는 수제 폭탄과 신전홍보용 자료와 극단주의자들의 문학자료들이 발견되었고 범죄자들의 휴대폰에는 수제폭탄의 설계도가 저장돼 있었다. 현재 이 형사사건은 조사 중에 있다.

### 사할린미술관, 이철수 한국 화백의 전시 개최

오는 5월 5일 17시 사할린주미술박물관에서 한국의 유명한 목판화가 이철수 화백의 전시회가 열린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조화의 탐색 속에'로 1985년부터 오늘 날까지 그가 제작한 작품 83점이 들어와 전시된다.

그의 작품은 백지에 먹으로 단체색의 그림을 통해 자연과의 합일, 단순함, 깊이로 내면화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이끌어간다. 사할린동포에 대한 애정이 많은 이철수 화백은 5일에 있을 전시회 개막에서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해 직접 설명할 계획으로 많은 동포들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 이 화백은 1981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1980년대 사회운동가로서 사회적 문제들을 작품으로 다루었고 국내외 많은 전시회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사할린국립대, 한국어말하기 대회와 한국학 경시대회 개최

4월 28일(금) 10시 사할린국립대학교에서 <한민족 언어의 아름다움과 지혜>란 주제로 한국어말하기대회와 개최된다. 이 정례 행사는 사할린주정부(주교육부)·주 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사할린한국교육원)·사할린국립대학교(한국어과) 공동주최로 진행되어 주내 대학생들과 학교 학생들이 참가한다. 대학생들과 고교생들은 <한민족 언어의 아름다움과 지혜>란 주제로 정해진 관용어를 사용해 5분간 발표를 준비하고 초·중·고학생들은 농부에 대한 시를 읊어야 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사할린국립대에서 <한민족의 얼이 담긴 전래동화와 속담>이란 주제로 사할린주 한국학 경시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학생들은 두 주제 중(한국 전래동화 또는 속담)을 하나를 선택해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경시대회는 사할린주한인회와 사할린국립대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 사할린 저소득층 가구에 무료 식품 배급

현재 사할린주에서 정한 1인당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받고 있는 가정들에게 2500루블리 정도의 식품세트를 제공하는 정책을 구상 중이다. 이와 같은 지원은 1년간 이뤄질 전망이다. 사회복지상점에서 3개월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다.

사할린주의 최저 생계비는 2016년 4/4 분기에 평균 13728루블리에 해당했다고 사할린주 사회보호부는 전했다.

### 제14차 사할린 한인단체대표자 회의 올해 사할린 영주귀국자 손자녀 250명 모국방문

지난 26일(수) 대한민국적십자사의 주최로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제 14차 사할린한인단체 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다. 한적 대표단은 특수복지사업소 박선영 소장·김 덕 팀장·최소남 담당으로 구성되었고 러시아와 CIS(독립국가연합)을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 사할린주한인회 김홍지 회장, 지역간사회단체 사할린인협회(모스크바) 유성창 회장, 연해주 이산가족 협회(블라디보스토크) 전윤수 회장, 극동지역 한인이산가족협회(하바롭스크) 김영준 회장, 카자흐스탄 사할린향우회 이화섭 회장이 대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로스토브-나-도누 동포회 회장이 참석하지 못했다.

회의에서는 각 지역 단체들의 보고가 있었다.

한국 측도 2016년 특수복지사업소 추진 실적을 발표했다. 작년에 실시 모국방문은 총 121명(계획 110명)이 했는데 그중 1세는 61명, 2세는 60명이었다. 작년에 한국이 영주귀국 사업을 총괄한 가운데 11명이 영주귀국을 했고 역방문 프로그램으로 436명(계획 400)이 사할린을 비롯해 모스크바, 하바롭스크 등 전 거주지역을 다녀올 수 있었다고 한적 관계자가 전했다.

한적 특수복지사업소가 지속적으로 해온 1-2세대 일시 모국방문프로그램으로 2017년에 110명(1세 50명, 2세/사망자 자녀 60명)이 한국을 방문하고 영주귀국자 438명이 역방문할 예정이다. 올해 영주귀국사업으로는 한국 정부가 16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한국정부는 신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선영 특수사업소 소장은 고향으로 몸이 불편하여 역방문을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2-3세대 자녀들이 모국을 방문할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안산 고향마을과 인천 사할린동포복지회관 입주자들의 손자녀들 250명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할린한인사회단체들이 자녀들의 한국방문 문제를 두고 여러 번 요청했었는데 마침내 한국 정부의 긍정적 회답이 온 것이다.

그외 회의에서 사할린한인에 관한 여러 문제가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에 보낸 결의문(2면 게재)을 채택했다.

(본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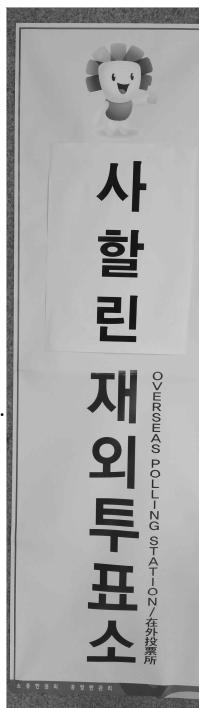
### 사할린, 한국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투표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투표가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전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가 4월 10일 밝힌 바에 따르면 19대 대선 재외유권자 수는 역대 최다인 294,633명으로 지난 18대 대선 당시 222,389명에 비해 32.5% 늘어났다. 이는 2012년 처음 도입된 재외국민투표가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며 자리를 잡았다는 점 그리고 탄핵 정국으로 인해 재외국민들의 고국 정치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유즈노사할린스크 영사출장소에서는 재외국민투표가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으로 교민 52명이 등록했다고 출장소 측이 밝혔다.

(본사기자)



## 새고려신문

## 2017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7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5루블리 79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 올해 사할린동포 유골 15위 봉환 예정

### 한국 행사부 대표단, 사할린 9개 행정구역 방문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대표단(단장 홍진식 과장, 총 3명)이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6박7일 일정으로 사할린을 방문했다. 방문 주요 목적은 제5차 한인 유골봉환 사업과 제3차 사할린 한인 기록물 입수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4일 (월) 사할린주 정부에서 크리니츠키야 엘레나 주정부 경제개발부 아시아1국 부국장, 사마린 알렉세이 문화문서보관부 장관, 노소브 블라지미르 러시아 외무성 유즈노사할린스크 대

표 등 비롯 사할린 해당 부처 담당 자들과의 만남에서 한국대표단은 방문의 취지를 밝혔다. 한국 행정자치부 관계자 3명 외에 한국



측을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 황명희 소장이 대표했다. 황명희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장은 2013년부터 사할린한인 유골 봉환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데 협조한 러시아 정부와 사할린주 정부에 사의를 표하고 올해 제 5차 유골 봉환사업 협조를 부탁했다.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봉환 업무를 총괄하는 홍진식 과장도 역시 러시아 측에 그동안 러시아 연방정부, 사할린 주정부, 사할린주 신분등록국, 주문서보관소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지금까지 유골봉환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었다며 감사인사를 드렸다. 홍진식 과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제5차 한인 유골봉환 사업과 제3차 사할린 한인 기록물 입수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금년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한인 유골 15위를 국내로 봉환할 계획으로 유골은 총 22명의 사망자 중에서 사망증서가 발급되는 15건을 선정하며 봉환하려고 한다. 22명의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묘지 중에 6기(基)는 배우자의 묘지도

같이 있는데, 유족들이 배우자의 유골도 봉환하길 원하고 있어 이들과 포합하면 총 28명이다. 그중 15-21위(位)의 유골을 봉환하려고 하는 것이다.

홍 과장은 2014년에 실시한 '제1차 한인기록물 입수사업'과 2016년에 실시한 '제1차 한인기록물 입수사업'에 이어 금년에는 7월부터 '제3차 한인기록물 입수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 크리니츠키야 경제개발부

아시아1국 부국장, 사할린 문화문서보관부 장관, 노소브 러시아외무성 대표 등은 이번에도 유골봉환사업과 기록물 입수사업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사할린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 한국 팀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나와·코르사코브·돌린스크·네벨스크·홀스크·우글레고르스크·포로나이스크·마카로브 구역 총 9개 행정구역 지도부와 면담을 가져 유골봉환 사업 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대표단은 사할린주한인회(회장 박순옥)와 아시아나항공 사할린 지점(지점장 홍정환)을 찾아 유골봉환 사업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사할린한인사회계는 이미 몇 년에 걸쳐 한국정부가 실시하는 유골봉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김홍지 주한인회 부회장·주노인회 회장은 매년 이와 관련한 모든 사업을 맡아 서류 준비는 물론, 직접 한국대표단들과 사할린 지방 방문시 동행하여 '다리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오고 있다.

한국 측은 매년 실시하는 유골봉환 행사를 계기로, 러시아와 한국 간의 우호적 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배순신기자)

## 결 의 문

2007년 3월, 2009년3월, 2011년 4월, 2012년 4월, 2013년 5월, 2014년 5월, 2015년 5월, 2016년 4월 사할린 한인단체 대표자회의에서 채택한 일본정부에 대한 결의문이 정당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아래와 같은 문제들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 "사할린 동포 지원 한-일 적십자사 공동 사업체"에 사할린 한인 단체 대표를 참가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자손들을 희망자에 한 해 영주귀국을 허용하라.
- 2015년도 이후 영주귀국이 마감되더라도 현지에 남은 1세들을 위해 일본정부는 계속적으로 지원해야한다.
- 사할린 1세 잔류자들에게 매월 미화 300달러의 생계 지원금을 지원하라.
- 부모사망자 모국방문을 추진하라.
- 징용당한 사할린 한인들의 미지급 임금, 우편예금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사할린 한인 특별기금으로 조성하라.
- 1세 영주귀국 및 일시 모국방문시 동반자가 동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
- 사할린 1세 잔류자들을 위해 양로원 건립과 운영비 지원하라.

본 결의문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러시아 및 일본정부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2017년 4월 26일

사할린지역대표  
 사할린주 한인회 회장 박 순옥  
 사할린주 노인회 회장 김 홍지  
 사할린주 이산가족회 부회장 박 경춘  
 극동지역대표  
 극동한인이산가족협회 회장 김 영준  
 연해주한인이산가족협회 회장 전 윤수

모스크바지역대표  
 지역간사회단체사할린인협회 회장 유 성찬  
 로스토프 사할린동포회 -  
 CIS지역대표  
 카자흐스탄 사할린향우회 회장 이 화섭

## 결 의 문

2007년 3월, 2009년3월, 2011년 4월, 2012년 4월, 2013년 5월, 2014년 5월, 2015년 5월, 2016년 4월 사할린 한인단체 대표자회의에서 채택한 한국정부에 대한 결의문이 정당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아래와 같은 문제들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 "사할린 동포 지원 한-일 적십자사 공동 사업체"에 사할린 한인 단체 대표를 참가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자손들을 희망자에 한 해 영주귀국을 허용하라.
- 한국국적이 없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러시아 현지 자손들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라.
- 2015년도 이후 영주귀국이 마감되더라도 현지에 남은 1세들을 위해 한국 정부는 계속적으로 지원해야한다.
- 사할린 1세 잔류자들에게 매월 미화 300달러의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라.
- 부모 사망자 모국방문 인원을 확대 하라.
- 본 결의문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한국정부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2017년 4월 26일

사할린지역대표  
 사할린주 한인회 회장 박 순옥  
 사할린주 노인회 회장 김 홍지  
 사할린주 이산가족회 부회장 박 경춘  
 극동지역대표  
 극동한인이산가족협회 회장 김 영준  
 연해주한인이산가족협회 회장 전 윤수

모스크바지역대표  
 지역간사회단체사할린인협회 회장 유 성찬  
 로스토프 사할린동포회 -  
 CIS지역대표  
 카자흐스탄 사할린향우회 회장 이 화섭

## 이 모 저 모

### 유즈노사할린스크, 올해 1만 개 게오르기 리본 나누어

4월 24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시청년이니셔티브센터가 개최하는 <게오르기 리본> 연례적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 센터의 자원봉사자 45명은 주중앙도시 시민들에게 '게오르기 리본'을 나눠줄 예정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은 전승절의 주요 상징을 체호브센터, 중앙우체국, 주 일반과학도서관의 앞마당에서 받을 수 있다.

리본 나누기 행사는 4월 24일, 28일, 29일, 그리고 5월 6일, 7일, 8일 15시부터 16시까지이며 전승기념 주요 행사들에서도 리본을 나눌 계획이다.

행사 첫날에 자원봉사자들은 시민들에게 1000개의 리본을 나누어 주었다.

청년이니셔티브센터는 행사 전 기간 동안 승리의

상징물 1만 여 개를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 В этом год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раздадут более 10 тысяч георгиевских ленточек

24 апрел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артовала ежегодная акция "Георгиевская ленточка",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центром молодежных инициатив.

Раздавать георгиевские ленточки жителям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будут 45 активистов волонтерского центра. Получить главный символ праздника Победы жители и гост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могут на площадях перед Чехов-центром, главпочтамтом, у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и.

Раздача будет вестись 24, 28, 29 апреля и 6, 7, 8 мая с 15:00 до 16:00, а также на всех значим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посвященных Дню Победы.

В первый день акции активисты волонтерского центра раздадут жителям 1000 ленточек. Всего же за время акции планируется раздать более 10 000 символов Победы, сообщает центр молодежных инициатив.

### 일본, 쿠릴열도에서 해조류 채취로 미화 83만 달러를 러시아에 지불 예정

일본은 쿠릴열도 해역에서 해조류 채취권을 얻은

대가로 러시아에 9500만 엔 (약 83만 달러)를 지불하게 된다고 <웨스퍼. 에코노믹>지가 러시아 수산청의 보고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수산청의 정보에 따르면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러'수산청과 일본 수산업협회의 연례회의에서 채취량이 확정되었다.

일본 측은 수산업 지역에서의 해조류 보유량 조사와 보전 작업을 위해 무상으로 350만 엔의 장비 설치를 러시아의 관련 업체들에 제공할 방침이다. 조사는 2017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태평양 소비에트스키 망 내에 쿠릴열도의 중 하나인 시그날니 섬 부근 해역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2017년 해조류(다시마, 곰피 미역류 등)의 총 채취량은 3892톤 미만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측 소식통에 따르면 이 규모가 작은 것은 협정 지역에서 해조류의 성장, 번식에 유병의 표류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에 따라 일본 측이 지급하는 금액을 남쿠릴의 프로젝트 지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8면에 계속)

##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다는 소감 본사 이예식 기자 <귀환> 사진전 부산에서 열려

지난 4.22(토) 부산의 40계단 문화관 전시실에서 새고려신문사 이예식기자의 사진전 <귀환>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부산 기장군에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이 도착하자 남산놀이마당의 길놀이가 시작되면서 개막행사가 본격적

동 포넛 회원들과 KIN(지구촌동포연대)와의 협의로 개최가 성사되었다. KIN(지구촌동포연대) 최상구 사무국장은 "사할린 한인 대다수가 경상도 출신이고, 그분들이 가족들과 헤어져 떠나야 했던 부산항이 있는 이곳 부산에서 그들의 귀환



으로 시작되었다. 소리꾼 양일동님의 소리와 무용가 하연화님의 공연이 이어졌고, (사)사할린 한인 역사기념사업회의 조기종 상임공동대표와 부산 해외동포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부산동포넛)의 정승천 대표 등의 인사말이 있었다.

다큐멘터리 사진가 장영식씨의 사회로 작가와의 대화가 이어졌다. 작가와의 대화 시간에는 기장군에 영주귀국한 동포들이 "이런 전시를 볼 수 있게 준비하신 모든 분들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다는 소감을 말하기도 하였다. 개막행사 후 43명의 영주귀국 동포들은 주최측이 제공한 식사를 하고 버스로 돌아갔다.

이번 전시는 지난 1월 사할린을 방문한 부산

을 전시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전시입니다. 영주귀국한 동포들과 함께하며 그분들께는 잠깐이나마 위안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사할린 동포들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시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이예식 기자는 매주 토요일 (사)부산민예총이 주최하는 부산평화의 소녀상 지킴이 예술행동 현장을 방문하여 홍순연 대표(극단 자갈치)의 <열네 살 무자> 공연을 관람하였고, 국립 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을 방문하여 일본의 우토로 마을 사전전과 상설전시를 보는 등 사할린 동포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KIN 제공, 사진/부산 동포넛 제공)

## 동양나라 춤 매혹에 빠져

지난 23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청소년 창작회관에서 <매혹적인 동쪽>의 축제가 사할린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 축제의 주최자는 <바기라>무용단 벨리댄스의 지도자인 날리브키나 류드밀라다.

축제에는 사할린의 홈스크, 네헬스크, 토마리, 코르사코브 등 여



러 도시의 무용단들이 참가한 가운데 아르메니아, 타타르스탄, 바쉬키리아, 인도, 러시아, 한국 등 국가들의 전통무용을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아마추어 무용팀들이지만 오랜 연습과 훈련이 돋보인 무대였다. 이 축제에 사할린한국교육원 소속 <아리랑>무용단도 참가했다.

멋진 춤을 무대에서 선보여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환호와 갈채를 받은 가운데 축제는 참가자들의 전체 사진촬영으로 마무리되었다.

(박영자)  
(사진: 안영수)

## 사.할.린. 얼어붙은 섬에 뿌리내린 한인의 역사와 삶의 기록

저자 최상구

(전호의 계속)

"한국에 있는 방송국을 찾아가 부탁했죠. 사할린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방송을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사할린 사람들이 한국 노래를 듣고 싶어 하니 음악을 내보내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요청했습니다."

### 마침내 성사된 이산가족의 만남

1970년대 들어 사할린 한인 귀환운동은 몇 가지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일본에서 일어난 귀환운동의 영향으로 사할린에서도 한인들의 귀환 요구가 거세어진 것이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라 하겠다. 하지만 소련 당국은 일본에서 진행 중인 귀환운동을 단지 반소 혹은 반공 운동으로 인식했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는지, 내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그런 가운데 한 번은 소련이 '일본을 경유해 한국으로 귀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한인의 출국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이를 번복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한국으로의 귀환이 좌절된 한인들은 크게 분노해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그러자 소련 정부는 한인을 달래기는커녕 오히려 시위 주동자로 지목된 도만상 씨 가족 일가를 포함해 한국행을 요구한 40여 명의 한인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처럼 뽀뽀 얼어붙은 사할린 한인 문제에 햇살이 비추기 시작한 것은, 개혁과 개방을 전면으로 내세운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새로운 리더로 떠오르고부터다. 그의 등장으로 소련 사회가 유연하게 변화한 것은 물론, 일본 내에서도 사할린 한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원들의 모임이 결성되는 등 귀환운동에 우호적인 조건들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마침내 일본 내에서 이산가족 만남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는 분명 큰 성과였지만, 귀환운동의 맥락에서 이산가족 찾기를 실제로 주도한 사람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은 여전했다.

"일본에서 사할린 한인의 이산가족 찾기가 진행된 게 1980년대 초반이네요. 우리가 열심히 뛰어다녀서 헤어진 가족들이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되었던 말이야. 그렇게 사할린과 한국에서 사람들이 일본에 왔으니 대접을 해야 하잖아. 우리가 그때 한국대사관에서 매월 6만 엔을 지원받았고 민단도 얼마간 지원을 하긴 했지만 돈이 턱없이 부족했어. 숙박비와 식사비가 많이 들었고, 또 관광도 할 수 있게 해줘야 했기 때문에 이래저래 수백만 엔이 필요했다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사할린 한인이 일본으로 오는 데 거쳐야 할 과정이 너무 복잡한 것도 문제였다. 소련과 일본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자체가 무척 까다로운 데다, 일본인 보증인을 세우고 추천장 공증까지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1987년 일본 국회에 <사할린 잔류 한국·조선인 문제 의원간담회>가 발족되면서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행정상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계속)

## 재외동포재단-독립기념관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과 독립기념관(관장 윤주경)이 21일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독립기념관 거래누리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주철기 이사장, 윤주경 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재외 한글학교에 역사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 사업을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또, 매년 순차적으로 선정된 한글학교 100여 곳에 모국의 국난극복, 독립운동 역

사를 교육할 수 있는 교수 자료와 동영상, 학생용 교구재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는 우선 미국지역의 한글학교를 대상으로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을 집중 탐구할 수 있는 역사 학습자료와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 등을 주제로 하는 체험학습 교재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등 관련된 교재를 통해 미주 어린이·청소년들의 정체성 함양에 기여할 계획이다.

- 더불어 오는 8월 개최되는 미주한국학교연합회와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

회와 교사연수에 참여하는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재미한인의 독립운동 특강, 교구재를 활용한 수업시연 등도 진행한다.

주철기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재외동포에 대한 역사교육과 정체성을 함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글학교에 다니는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차세대 재외동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 지원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лонка историка

## ИСТОРИЯ КОРЕИ



Помимо янбанов, в Чосон были и другие сословия, входящим в состав правящего класса. Это были чунъины (дословно – «средние люди»). Обычно они назначались на должности чиновников-специалистов. Слои чунъинов был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ромежуточным, ег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е относились ни к янбанам, ни к простонародью. В то же время надо подчеркнуть: этот слой не имел ничего общего со «средним сословием» в западно-европейском смысле слова, то есть с буржуазией. По сути чунъины и близкие к ним по статусу потомственные мелкие чиновники представляли собой неполноправных янбанов и были полупривилегированным сословием.

Значительную часть чунъинов составляли дети янбанов от наложниц. Хотя дети наложниц в Корее и подвергались дискриминации, это не означало, что они были полностью отстранены от любой чиновничь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ак это декларировалось). Неполноправными они были лишь в сравнении с другими янбанами, но никак ни в сравнении с простолюдинами (о них мы поговорим позже). Дети наложниц вполне могли занимать чиновничьи посты, хотя для них, разумеется, устанавливались «служебные потолки» – граница предельной карьерной лестницы. Этот потолок зависел от ранга отца. Однако получать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посты детям наложниц удавалось редко, в основном они занимали должности исполнителей, а не властных.

По официальной классификации чиновничьих должностей в Чосон существовали 10 дисциплин, которыми обычно занимались чунъины – иностранные языки, медицина, гадание, живопись, математика, юриспруденция, учение о дао. Это дисциплины, как и вообще все связанное с естественными науками и ремеслом, традиция относилась к разряду второстепенных (считалось, что самая важная и нужная дисциплина, настоящая науч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 это изучение трудов древних философов и комментариев к ним).

Тем не менее, государству требовался набор специалистов – знатоков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математики, законов – и эту роль взяли на себя чунъины. Получившим такую должность чунъинам присваивали чиновничьи ранги, но не слишком высокие.

Необходимость обладания практическими знаниями способствовала тому, что должности чунъин стали передаваться по наследству. Одновременно появились ограничения для занятия должностей выходцами из сословия чунъин.

Сословие чунъинов не было таким закрытым как сословие янбанов.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простолюдины и мелкие чиновники могли сда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экзамены и стать чунъинами, с другой – дети чунъинов не всегда могли сохранить свой статус и становились простолюдинами.

Чунъины были своего рода маргиналами –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они были выше простых людей, но не будучи полноправными янбанами, все время стремились попасть в привилегированный слой. Однако система, основанная на чистоте родовой крови, их ограничивала в этом. При этом они не могли мириться со своим положением – обладая образованием, знаниями, деньгами, они не хотели были принижены по отношению к янбанам людьми. Этот маргинальный слой дал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разного рода анти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выступлений и идеологов движения «сирхак» (за реальные знания) и постоянно поднимал вопрос о равноправии с янбанами (что поддерживалось частью последних). В 1696 г. внукам свободных наложниц и правникам несвободных было разрешено сдавать гражданские экзамены, а в конце XVIII–начале XIX вв. были сделаны дальнейшие уступки.

Немалую роль в уступках играл и тот факт, что правители Кореи (на которых ограничения чунъинов не распространялись) сами были детьми наложниц. Однако мног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янбанов опасались (и не без оснований), что отмена ограничений может ускорить и без того далеко зашедшее янбанское оскудение, вызвав непомерное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енности янбанов и распыление их средств.

В XVII–XVIII вв., с началом активизации контактов с цинским Китаем и ростом потребностей в переводчиках, мног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ословия чунъин стали заниматься легальной и нелегальной торговлей,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они значительно богатели. Считается, что чунъин – это одно из основных сословий, которое восприняло идеи модернизации и способствовало развитию Кореи. Поскольку представители чунъин, как правило, не имели земельных владений и не были связаны с земледелием, то они находились несколько в стороне от процесса формирования новых сословий крупных землевладельцев и крестьян-арендаторов.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Юлия Дин,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ГИАСО

## На ПМЖ в Корею может уехать 16 человек 25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2-3 поколений смогут навестить родителей в Корее

26 мар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ось ежегодное заседан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России и СНГ, организатором которого является Общество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В этот день Делегаты из России и СНГ подвели итоги работы за 2016 год и обсудили планы на текущий год.

Объединить силы по оказанию помощи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проживающим в разны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и странах СНГ. С такой целью Красный Крест ежегодно собирает совещание на Сахалине. Запланированная в 2016 году работа выполнена полностью.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в Корею выехало 11 человек. Более четырехсот репатриантов приехали в гости к родным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и стран СНГ.

Участников заседания по-прежнему волнует проблема негуманной программы репатриации, начавшейся с 1997 года. За это время выехало более 4 тысяч человек. Но никто из них не может сказать, что живет счастливо на родине. По причине разлуки с детьми есть статистика возвращения репатриантов в Россию.

Участники собрания вновь поднимали вопросы о выезде в Корею на ПМЖ не только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но совместно с детьми. Это один из самых злободневных вопросов, которые ставятся из года в год, но так и не сдвигаются с мертвой точки.

В адрес правитель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поступают обращения о принятии Закона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

цах, материальной помощи тем, кто остает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Вот и на этом заседании было принято очередное обращение-резолуция.

Учитывая пожелания участников заседания, Красный Крес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бещал озвучить резолюцию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Кроме этого, был намечен план мероприятий на текущий 2017 год.

Как сообщила Пак Сон Ен, руководитель специального отдела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б организации поездок детей к родителям. Прежде всего, это касается престарелых людей, которые по состоянию здоровья не могут выехать из страны и побывать в России на Сахалине. По этой программе планируется отправить в Корею в этом году 250 человек 2-3 поколения. Госпожа Пак отметила, что начнут с квартала «Кохян маыль» в Ансане и пансионата престарелых в Инчхоне.

Продолжится программа организации недельных культурных поездок в Корею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ервого и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й (110 чел.). Более 400 репатриантов смогут побывать на Сахалине, в России и СНГ (там, где проживали до репатриации).

Красный крест начнет работу п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ю и организацию всех вышеуказанных поездок в июле месяце. Работа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до ноября.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также выезд на ПМЖ 16 человек. Программу полностью финансируе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Ольга Ри.

##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перезахоронить 15 останков насильственно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корейцев

23 апреля 2017 года на Сахалин прибыла делегация Министерств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Цель визита - договориться о помощи в рамках «пятого этапа перезахоронения останко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Делегацию возглав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отдела по расследованию ущерба, понесенного жертвами насильствен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Хон Дин Сик. Во время пребывания на Сахалине с 23 апреля по 29 апреля у коре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был очень напряженный график.

24 апреля делегация посетил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встрече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Кривичная Е.Г.,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перв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Аз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марин А.Г.,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сов В.Н.,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Д Росс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др.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МИД России обещали содействие и всевозможную поддержку в реализации пятого этапа перезахоронения останко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Также на встре-

че обсуждался вопрос о помощи в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архи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по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выразила благодарность правительств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понимание и поддержку в реализации данного проекта.

В тот же день, 24 апреля делегация с официальным визитом посетила Анивски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нистерств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и РК также посетили города Корсаков, Холмск, Невельск, Долинск, Углегорск, Поронайск, Макаров, где состоялись такие же встречи с руководством районов.

Встречи прошли в рамках достигнутых ранее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по проекту перезахоронения останко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е. Целью проекта является исследование факта ущерб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сильно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на Сахалин во время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материалов для подтверждения мест захоронений, перезахоронения останков, выплаты компенсаций и т.д. Работы по поиску и перезахоронению

останков корейцев ведутся с 2007 года по соглашению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ами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сновным вопросом, который обсуждался на встречах, стало достижение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по пятому этапу перезахоронения останко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амое важное на подготовительном этапе – помощь администраций округов в организации работы в архивах по розыску свидетельств о смерти граждан, чьи останки должны быть перезахоронены.

Коре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также посетила офисы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авиакомпании Азины на Сахалине, где также обсуждались вопросы поддержки проекта перезахоронения.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сахалинская корейская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оказывает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е большую помощь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Здесь велика ро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Совета старейшин Ким Хон Ди (Виктора Николаевича).

В этом году перезахоронение произойдет в сентябре. Планируется перезахоронить 15-ть останков.

(Наш корр.)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 새고려신문 살리자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 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Кандидаты в президенты РК провели очередные дебаты

25 апреля состоялись очередные теледебаты кандидатов на пост президента РК от пяти крупнейших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Как и в прошлый раз, каждый из них представил своё видение вопроса создания рабочих мест, реш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их проблем, а также проблем безопасности. Одной из главных трудностей в реализации предвыборных программ по созданию рабочих мест кандидаты отметили обеспечение финансовых ресурсов. Коснувшись реше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кандидаты от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Мун Чжэ Ин и от партии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Сим Сам Чжон переложили вс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бывших президентов страны Ли Мён Бака и Пак Кын Хе. В свою очередь, кандидаты от партии Свободная Корея Хон Чжун Пхё и от партии Парынь Ю Сын Мин назвали ошибочной политику правительств Ким Дэ Чжуна и Ро Му Хёна, которые шли на чрезмерные уступки Пхеньяну. Ю Сын Мин и Хон Чжун Пхё, между тем, вновь предложили разместить в РК американское тактическое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Мун Чжэ Ин и Сим Сан Чжон высказались против этого. Коснувшись возмож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андидатов от консервативных сил, Хон Чжун Пхё, Ан Чхоль Су и Ю Сын Мин отметили нежелательность этого.

## СК отметила 85-ю годовщину основания КНА

25 апреля в СК отмечалась 85-я годовщина основания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Накануне в Пхеньяне состоялось торжественное заседание, в которо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артийного и военн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Пак Ён Сик заявил, что СК готова в любое время нанести ядерный удар по американским базам как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так 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ША. В этом году праздник отмечался довольно скромно - без военного парада и массовых факельных шествий. Главными мероприятиями, помимо торжественных собраний, стали праздничные концерты и фейерверк в Пхеньяне. Газеты в эти дни концентрируют внимание на армейской жизни, помещая репортажи из различных частей КНА. Сообщают также о проведении в районе порта Вонсан на восточном побережье крупных артиллерийских стрельб, за которыми наблюдал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им Чон Ын.

##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К, США и Японии обсудили ситуацию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25 апреля в Токио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на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ах п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е от РК, США и Японии. Кроме того, в этот день в Токио с четырёхдневным визитом прибыл специальный посланник Китая по проблемам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У Давэй. Таким образом, активизируются контакты сторон,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решен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и ракетной проблем.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К, США и Японии, между тем, договорились продолжать тщательный мониторинг ситуации в СК, учитывая возможность новых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провокаций. Они также сошлись во мнении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извать Пекин оказать давление на Пхеньян. Во встрече в Токио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спец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по вопросам мир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Ким Хон Гюн, спецпредставитель США п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вопросам Джозеф Юн и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Азии и Океании МИД Японии Кэндзи Канасуги.

## В МИД России выразили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действиями Пхеньяна

Россия осуждает демонстративные шаги Пхеньяна, нарушающие резолюции СБ ООН. Об этом заявил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по вопросам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 контроля над вооружениями МИД РФ Михаил Ульянов, выступая 24 апреля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в МИА «Россия сегодня». По его словам, политика Севера является поводом для серьезнейшего беспокойства. Михаил Ульянов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провокационные действия Севера абсолютно ненормальны и заслуживают решительного осуждения. Он указал, что Россия и Китай призывают все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е стороны вернуться к переговорам и воздержаться от наращивания военных сил в район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днако, судя по всему, к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работе п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ситуации не готовы ни Запад, ни Пхеньян. Михаил Ульянов отметил, что пока надёжного рецепта выхода из нынешнего кризисного состояния ни у кого, видимо, нет. (RKI)

## И ЧОЛЬ СУ: «В ПОИСКАХ ГАРМОНИИ»

5 мая в 17.00 в Сахалинск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откроется персональная выставка извест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художника И Чоль Су «В поисках гармонии». Будут экспонироваться 82 графических листа, выполненных с 1985 года и до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И Чоль Су – художник, начавший в 1980-х годах как сторонник социализма, затрагивающий в своих работах общественную проблематику, к началу 1990-х годов полностью изменяет свою мировоззренческую

позицию. Следствием или причиной такой перемены стал и переезд художника из Сеула в деревню Багунмён в 1987 году. С этого времени И Чоль Су обращается к буддизму и через новую философскую оптику создает свой стилистический язык. Работы художника отсылают нас к классической монохромной живописи тушью на белой бумаге. Мастерами подобной живописи были, как правило, буддийские монахи секты сон, призывающие человека обратиться не к религиозным

догматам, а к самоуглублению, опрощению, слиянию с природой. И Чоль Су, редко прибегая к цвету, выразительной линией и пятном выражает главную идею философии сон - о связи всего сущего.

Художник через философию буддизма напоминает нам о том, что нельзя забывать сегодня, что человек – только часть биоценоза и достичь гармонии можно благодаря объединению с другими людьми.

И Чоль Су уже больше двадцати лет живет в про-

винции и, проводя время в творчестве и в полевых работах, художник полагает, что физический труд помогает человеку обрести равновесие в то сложное время, в котором мы живем.

Выставка графических работ И Чоль Су, получившего широкое признание по всему миру, впервые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а российскому зрителю.

И Чоль Су специально прилети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 расскажет о работах на открытии выставки.

Выставка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до середины июля, сообщили в музее.

## В Москве состоитс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священная 80-летию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цев в Среднюю Азию

30 мая в Москве состоитс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1937 год – прошлое, настоящее и будущее. Корейцы как часть Русского мира", посвященная 80-летней годовщине насильствен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Центральную Азию.

В сентябре 1937 года на основании совместного постановления Совнаркома СССР и ЦК ВКП (б) «О высел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из по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 подписанного И. Сталиным и В. Молотовым около 172 тысяч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были выселены из своих обжитых мест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Среднюю Азию и Казахстан. В результате этого выселения корейцы прошли через трудные годы выживания, тяжёлые испытания, невзгоды и лишения. В начале 90-х годов, из-за развал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корейцы вновь стали переселенцами, только уже вынужденными, что было не менее трагично. Однако,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трудности, за более чем 150 – летнюю историю пребывания в России корейцы гармонично интегрировались в советский и российский социум, стали неотъемлемой составной частью единой российской нации.

Цель конференции: показать роль и зна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в развитии и укреплении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в контекст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объединить усилия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деятелей в содействии укреплению единства гражданской общности «россияне».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конференции стали 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Национальный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Высшая школа экономики», Московский до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сообщили в оргкомитете.

## В РК сокращается рождаемость и растёт количество браков

В феврале этого года в РК на свет появилось 36 тыс. новорожденных. Это на 12,3% мен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едыдущего года.



Подобное падение является максимальным с февраля 2005 года. Об этом 26 апреля сообщили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татистиче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Кроме того, в обществе продолжается тенденция нежелания вступать в брак. Так, в феврал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21,5 тыс. пар, что на 4,4% меньше, чем год назад. Количество разводов выросло на 9,9%, составив 8.900. (KBS World)

## В майские праздники аэропорт Инчхон обслужит 2 млн человек

В начале мая в РК отмечается ряд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раздников. В этой связи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период с 28 апреля по 9 мая услугам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аэропорта Инчхон воспользуются примерно 1 млн 970 тыс. человек.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руководстве аэропорта. Это на 11% бол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едыдущего года. Средний суточный показатель, по прогнозам, составит 164.403 человека. Для обслуживания такого потока пассажиров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привлечь дополнительно 540 человек персонала. В преддверии предстоящих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на третьем этапе аэропорта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 избирательный участок, чтобы отбывающие за рубеж граждане могли досрочно проголосовать. (KBS World)



## 재외동포의 보듬기! 코리아넷으로



720만 재외동포 전문 포털 코리아넷은 재외동포 관련 뉴스, 한국 관련 문화콘텐츠 등을 제공하며, 민원 안내·접수, 제단 각종 사업 안내·접수 등을 통해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코리아**  
재외동포의 각종 정보 소식 전달

**재외동포 지원**  
비영리단체 홈페이지 지원 재외동포 지원사업 신청

**소통과 공감**  
이벤트 참여 및 커뮤니티 정보 제공

**재외동포 신문고**  
외국 국적 재외동포들의 민원 신청/조회

##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январь-март 2017 года

Объем валов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дукта составил 207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или 102,1% по отношению к аналогичному периоду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бъем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 195,7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или 103,2%. Увеличилась добыча газа и составила 7,4 миллиарда кубических метров. Угольным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области добыто 1,2 миллиона тонн угля, что в 1,4 раза выше января-марта 2016 года. Улов рыбы и морепродуктов (по данным СКТУ Росрыболовства) составил 229,9 тысяч тонн, или 95,4%, переработано 151,3 тысяч тонн, или 117,1% к аналогичному периоду 2016 года.

Выпуск продукци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за январь-март 2017 года составил 679,8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или 95,2%. Сохраняется рост производства мяса (на 8,2%) и молока (на 5,6%). Выросло поголовье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на 23%) и птицы (на 8,5%). Средний надой молока на 1 корову увеличился на 19,3%. Однако сократилось производство яиц на 29,7%.

В сфере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за январь-март 2017 года введено в эксплуатацию 77,9 тысяч кв. м жилья, что на 10,8% выше января-марта 2016 года.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счет собственных и заемных средств построили 26,3 тысячи кв. м (на 19,9% ниже января-марта 2016 года), что составляет 33,8% от общего ввода жилья.

На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м рынке в январе-марте 2017 года объем розничного товарооборота вырос на 5,4%. В то же время сохраняется снижение объемов платных услуг на 3,4% и оборот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на 6,5%.

Среднемесячна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в расчете на одного работника, по оценке, составила 67,4 тыс. рублей, она увеличилась на 2,6%. Денежные доходы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в отчетном периоде составили 47,5 тыс. рублей, или 101,3% к январю-марту 2016 года. Реальные денежные доходы составили 96,7%. Уровень регистрируемой безработицы на 1 апреля 2017 года составил 0,9% и вырос к аналогичной дате 2016 года на 0,1%.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пускают программу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школ

В течение пяти ближайших лет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олучит 10 современных зданий под размещени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Главная задача - ликвидировать вторую смену и вывести из эксплуатации строения, имеющие высокую степень износа. Эти планы областн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в ходе недавней встречи с главой региона одобрил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ервыми новые школы получат Охинский и Долинский районы, где уже разворачиваются стройки.

- Здание будет выполнено в стиле модерн - из бетона, стекла и стали, с красивыми фасадами. Сейчас роется котлован,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выйдем на нулевой уровень и приступим к заливке бетонного основания, - доложили губернатору, который прибыл на мест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овой школы в Долинск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мпании-подрядчика. - Сейчас составлен график проведения работ, на площадке задействовано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единиц строительной техники, в основном, экскаваторы и тяжелые грузовики.

Большая школа на 800 учащихся возводится в самом центре города, на улице Пионерская, в нескольких десятках метров от центральной площади и район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на участке 3,2 гектара. Это будет 3-этажное здание площадью почти 1200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с несущей конструкцией в виде монолитной железобетонной рамы, позволяющей выдержать даже сильное землетрясение. Составят новостройку 6 блоков.

В центральном «А» разместятся гардеробные комнаты, учебные помещения для учеников средних и старших классов, библиотека, музей, радиостудия, тренажерный зал и медпункт.

В блоке «Б» будут находиться актовый зал на 320 мест, учебные помещения для учеников средних и старших классов, кабинет психолога и большая столовая полного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цикла на 280 посадочных мест.

Спортивный зал с раздевалками, санитарно-бытовыми помещениями и душевыми займет блок «В».

Еще в трех модулях - «Г», «Д» и «Е» расположатся помещения для младшеклассников, а также мастерские и кабинеты домоводства,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е классы по обучению предметам физики, химии, информатики,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и пения, лаборантские комнаты, учительская и кабинет логопеда.

Все классы новой школы оснастят учебными мультимедийными комплексами, включая интерактивные доски, столы с компьютер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и беспроводной системой опроса.

Еще одно важное условие, обозначенное в проекте, -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процесс должен быть доступен для

инвалидов. Главный вход будущего учебного заведения оборудуют пандусом с поручнями, а лестничную клетку в вестибюле - электрическими подъемными платформами для школьников-колясочников. На всех этажах предусмотрены специальные санитарные узлы для маломобильных групп населения.

По периметру пришкольного участка будет установлена металлическая ограда. Значительную его часть займут стадион с искусственным покрытием и спор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Территорию у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комплексно благоустроят, разместив здесь малые архитектурные формы, систему освещения, скамейки и урны, газоны и цветники.

По первоначальному плану новая школа в Долинске должна быть введена в строй в конце 2018 года. Однако, по мнению главы области, эти сроки необходимо скорректировать - район сегодня остро нуждается в учебном заведении - здание первой школы города уже давно пришло в негодность.

- Сегодня у строителей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дать объект к 1 сентября 2018 года. Такие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достигнуты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компании-подрядчика, - сообщил по итогам посещения стройки Олег Кожемяко. - В целом мы планируем ежегодно вводить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две новые школы в течение предстоящих пяти лет, до 2022 года включительно. При этом в регионе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оявятся 5500 новых учебных мест, что даст возможность сахалинским школьникам обучаться в одну смену. Об этой программе было доложено Президенту РФ Владимиру Путину,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ее одобрил.

Строительство еще одной школы, совмещенной с детским садом, на 90 мест, в этом году начнется и на севере Сахалина, в селе Тунгор Охинского района. Подготовленная проектная документация сейчас проходи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экспертизу.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 2016 году увеличила объемы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На различные социальные выплаты и льготы было направлено почти 11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 на 400 миллионов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А в 2017 эта сумма выросла еще на 200 миллионов. В расчете на одну сахалинскую семью в среднем сейчас приходится пособий в денежном выражении на 80,9 тысячи рублей. Это превышает аналогичный показатель 2015 года на 25 тысяч рублей. Об этом 27 апреля сообщил губернатор област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е он представил отчет о результат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итогам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оциальная поддержка жителей сегодня по-прежнему - один из главных приоритетов в работе областных властей. В 2016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начали применять новый принцип оказания помощи, поставив во главу угла критерий адресности. Это позволило оказывать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оддержку самым нуждающимся в ней категориям граждан.

-Заметно увеличился размер помощи для малоимущих жителей, семей с большим количеством детей, а также имеющих в своем составе инвалидов. Например, ежемесячное пособие на детей для одиноких малоимущих матерей стало вдвое больше. В 2 раза выросли выплаты на питание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до 3 лет, проживающих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Студентам теперь дважды в год оплачивается половина стоимости проезда к местам обучения и обратно. Целая серия льгот адресована семьям с детьми-инвалидами. Они получили право на единовременную выплату для приобретения жилья. Областной 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теперь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на реабилитацию дет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физически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Увеличен и размер единовременной выплаты из его средств - с 15000 до 30000 рублей. Родителям, которые вывозя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ребенка-инвалида на лечение оплачивается и проезд, и проживание. Такую же поддержку они получают и при выезде на лечение за пределы региона.

Еще одно важное нововведение касается островитян, которые нуждаются в получении жизненно необходимых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Им выплачивается денежная сумма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здесь жиль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один из немногих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ов, который сегодня предоставляет также солидные выплаты на улучшение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многодетным семьям - до 2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За счет этог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овоселье справили 1966 семей.

В 2017 перечень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в регионе расширен дополнительно. Молодые семьи с низким достатком уже получают помощь в приобретении коляски и комплекта для новорожденных. А с мая продуктовые наборы начнут предоставлять малоимущим семьям с детьми.

Кроме того, расширены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рименения средст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атеринского капитала. К

примеру, он может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 на ремонт жилого помещения или приобретение автомобиля, а также предоставляться ежемесячно или ежеквартально в сумме от 5 до 20 тысяч рублей.

Важное нововведение сейчас обсуждается и в медицинской сфер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готовлен проект закона, который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бесплатного зубопротезирования для мужчин, достигших 60-ти лет, и женщин - 55 лет. Наша задача сделать все, чтобы люд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не оставались один на один с этой проблемой, тратили большие деньги на жизненно важные услуги, а получали их своевременно, без долгого ожидания,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 области продолжается реализацию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Доступная среда». По итогам 2016 года 53 учреждения были оснащены пандусами, подъемниками, информационными устройствами для слабовидящих и граждан с нарушениями слуха.

В Ногликском, Охинском, Невельском районах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иобретены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е автобусы,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перевозить маломобильных граждан. Для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физически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на Сахалине начала действовать сеть пунктов проката техн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реабилитации. На следующем этапе предстоит обеспечить им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В текущем году в регионе также планируют открыть областной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для инвалидов. Он сможет принимать до 200 человек в смену, в том числе 25 в условиях стационара. На базе учреждения будет работать цех по изготовлению протезов.

Действующая соци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лучила высокую оценку со стороны депутатского корпуса. Многие принятые областью социальны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ранее были единогласно поддержаны в парламенте.

- Подход властей, при котором помощь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олучают наиболее нуждающиеся граждане,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из числа малообеспеченных, оптимален. При этом важно, что в нынешних условиях сокращения доходной части бюджета, объемы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в регионе были не только не снижены, а напротив - даже увеличены, - отметил Дмитрий Мезенцев, представляющий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в Совете Федерации.

- Отчет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том, что региональны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а проделана серьезная работа в части расширения перечня льгот и пособий. В результате различные меры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стали получать самые незащищенные слои населения. Это можно только приветствовать, - сказал в свою очередь депутат облдумы Эдуард Таран.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добилась наилучших результатов в России в сфере снижения смертности от заболеваний системы кровообращения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была озвучена во время видеоселекторного совещания с органами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в регионах, которое провела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льга Голодец. Обсуждались, в частности, меры по снижению смертности от заболеваний системы кровообращения.

Как доложила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Ф Вероника Скворцова, положительные результаты в этой работе достигнуты в 11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Наилучшие в России показатели за первые два месяц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зафиксирован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островах отмечено снижение количества умерших от болезней системы кровообращения на 40,7 процент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В ходе видеоселекторного совещания было подчеркнuto, что это достижени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результат конкретной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й работы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 У нас создана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комиссия по реализации мер,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снижение смертности,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глава област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ведомства Алексей Пак. -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а работ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осудистого центра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а также пять первичных сосудистых отделений в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С этого года в ежедневном режиме контролируется состояние тяжелых больных, чтобы в случае угрозы жизни обеспечить оперативное реагирование и доставку пациента в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е медицинское учреждение.

По словам Алексея Пака, в шест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бласти из 18 имеются компьютерные томографы. До конца года такие аппараты появятся еще в двух районах - Томаринском и Ногликском. В результате значительно улучшатся условия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больным с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ы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재외동포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MOU 체결

한민족 청소년의 활동지원과 행복 증진 및 정체성 함양 등을 위한 상호 협력 인적, 물적 자원 공유 및 연구 협력, 청소년 활동에 안전 강화를 위한 협조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은 재외동포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4월 20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신은경)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전세계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OKF TEENS/ YOUTH CAMP(재외동포 중고생/대학생 모국연수), 차세대동포 한국어 집중캠프 등 다양한 연수 사업을 연간 진행하며, 안전하고 전문화된 연수 사업 운영을 위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의 협약을 추진하였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전국 5개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청소년수련활동인제를 관리하는 여가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외 한민족 청소년의 성장과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상호 협력하고자 한다.

협약 범위는 ▲ 국내외 한

민족 청소년 교류 증진 및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사항 ▲ 강사·학생 풀, 숙박·교육시설, 프로그램 등 인적, 물적 자원 공유 ▲ 청소년행복캠페인 운영, 확산, 발전, 정착을 위한 사항 ▲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 매뉴얼 제작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 기타 동일한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행복캠페인 '고마워 Yo'는 감사 나눔 실천을 통해 행복지수를 높이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청소년

인성활동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행복을 증진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 매뉴얼 제작에의 협조로 보다 안전한 청소년 활동도 도모하고자 한다.

주철기 이사장은 "청소년 대상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안전 부분과 연수 운영에의 많은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감사하며, 양 기관은 국내외 한민족 청소년의 성장과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рок 20

### 한국어로 번역된 푸시킨의 글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전호의 계속)

4. 보기와 같이 '-(으)로 말미암아'를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완성하십시오.

보기 친구, 인간 관계, 문제, 회사, 옮기다

→ 친구는 인간 관계 문제로 말미암아 회사를 옮겼습니다.

(1) 그 사람, 사고, 충격, 아직도, 병원, 입원 중이다

→

(2) 이번 여름, 봉사활동, 선후배들, 친해지다

→

(3) 해외 여행, 세계관, 더 넓어지다

→

(4) 우리 학교, 긍정적인 분위기, 학생들이, 공부, 더 잘하는 것 같다

→

(5) 다이어트 약, 과용, 위, 이상이 생겼다

→

5. '-(으)로 미루어(보아)'를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완성하십시오.

(1) 제 개인적인 경험이다 / 12월 경 한국 날씨는 아주 춥습니다.

→

(2) 사장님께서 고깃집에서의 회식을 반대하다 / 채식주의자이다.

→

(3) 물가 조사 통계 결과이다 / 이 나라의 경제가 불안하다는 판단이 선다.

→

(4) OO축구팀 감독의 말이다 / 다음 경기에 저 선수를 기용할 모양이다.

→

(5) 네가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다 / 나머지 사람들도 알 것 같다.

→

### 읽기 연습 Чтение

※ 다음은 푸시킨이 시를 번역한 것이다. 잘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그 사랑이 가능하지요.

나의 마음 속에선 그 사랑이 아직도 깡그리 사라지지 않았는데...

하나 그 사랑이 당신의 마음을 건드리지 말라지요.

왜냐하면 어떤 것으로도 당신을 슬프게 하기 싫으니까요.

(1829)

1. 이 시를 러시아어로 써 보고, 여러분 자신이 번역을 다시 해보시오.

2. 이 시와 비슷한 감정으로 노래한 한국의 시를 찾아 소개해 보세요.

### 과제 학습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1. '-(으)려나 모르겠다', '-(으)려나 하다', '-(으)려나는', '-(으)로 말미암아', '-(으)로 미루어(보아)'를 사용하여 각각 문장을 두 개씩 만드시오.

-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6) \_\_\_\_\_
(7) \_\_\_\_\_
(8) \_\_\_\_\_
(9) \_\_\_\_\_
(10) \_\_\_\_\_

2. 여러분 나라에 널리 알려진 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보세요.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끝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과서 자료 이용)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 [우리말로 깨닫다]

### 서점의 진화, 혹은 본 모습

동네 서점이 하나둘씩 문을 닫으면서 인문학의 위기, 독서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고, 팔리는 책도 아이들의 참고서나 처세에 관한 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온라인 서점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서 서점에 가는 일이 적어졌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재미난 매체들이 생기면서 서점의 쇠퇴를 부채질한 측면도 있습니다. 작은 서점들뿐 아니라 대형 서점도 백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미래학자들의 예상이 맞는구나 하며 우울해 지기도 했습니다.



▲ 조현용(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원장)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는 새로 문을 여는 서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헌책방도 오히려 새로 생겨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비밀은 서점의 변신, 진화에 있습니다. 이제 서점은 더 이상 책만을 파는 공간이 아닙니다. 대형 서점에 가면 한쪽에 차나 음식을 파는 경우가 있었고, 가끔 저자와의 대화를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작은 동네서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책을 사기만 하는 서점이 아니라 문화 공간, 생활공간으로 모습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서점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읽습니다. 도서관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겁니다. 책에 관해서 토론도 하고 작가도 만납니다. 좋아하는 작가를 직접 만나는 것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예전에도 있기는 했지만 서점을 중심으로 독서 모임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점에 잘 어울리는 일입니다. 책을 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읽으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독서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책방은 책을 팔기

만 하는 곳이 아니라 좋은 책을 권하고, 읽은 책의 느낌을 나누는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모습이 원래 서점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점에서 차를 파는 곳도 있습니다.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 중에는 차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직접 담은 전통차를 내놓기도 하고, 바리스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커피를 내놓기도 합니다. 집에 온 손님에게 차를 내놓듯이 말입니다. 향긋한 커피를 마시면서 좋은 사람과 좋은 음악도 듣는 서점의 모습은 행복 자체입니다. 북 카페의 반대개념이라고 할까요? 카페에 책을 장식한 것이 아니라 서점에서 여유 있게 차를 마시는 거죠.

서점에서는 때로 작은 음악회도 열립니다. 좋아하는 음악가를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일은 설레고 흥분되는 일입니다. 물론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도 행복한 기쁨이지요. 작은 공연장이 수없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몇 십 명이 모인 자리이지만 노래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정성이 가득합니다. 연주자의 숨결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노래하는 이의 숨소리도 놓칠 수 없습니다. 청중의 표정은 음악가에게 새로운 힘으로 다가옵니다.

때론 서점에서 무언가를 배우기도 합니다. 책과 관련된 인문학은 물론이요, 악기도 배우고 미술도 배웁니다. 도자기나 글씨 쓰기를 배우기도 하고, 뜨개를 배우기도 합니다. 책이 있는 곳이니 인문학의 향기가 있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들던 고전을 이야기하고, 역사를 읽고, 경전을 읽습니다. 선조와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책 속에서, 강연 속에서 살아납니다. 무엇을 배우는 일만큼 사람을 살아있게 만드는 일은 없는 듯합니다. 가능하다면 끊임없이 궁금해 하고,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이시습(學而時習)'이 바로 배우고 직접 해 보는 삶을 의미합니다. 기쁜 일이지요. 이제 우리의 서점은 따뜻하고 살아있습니다.

# 이모저모

(2면의 계속)

## 830 тыс. долларов заплатит Япония России за вылов морской капусты на Курилах

Япония заплатит 90,5 млн иен (около 830 тыс. долларов) за право добычи морской капусты (ламинарии) в районе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сообщает «Вести.Экономика» со ссылкой на Росрыболовство.

По данным ведомства, параметры вылова были определены на состоявшихся в Москве ежегодных переговорах между Росрыболовством и Хоккайдской ассоциацией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иков.

Отмечается, что японская сторона безвозмездно поставит российским организациям оборудование на 3,5 млн иен для технического содействия в проведении работ по сохранению и исследованию запасов морской капусты в районе промысла. Он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с 1 июня по 30 сентября 2017 года у острова Сигнальный, расположенного в Советском проливе Тихого океана в составе Малой Курильской гряды. Общий объем добычи бурых водорослей (ламинарии, аларии и костарии ребристой) в 2017 году составит не более 3892 тонны. По информации японской стороны, это связано с негативным воздействием дрейфующих льдов на рост морской капусты в районе действия соглаше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Ф полученные от Японии средства будут направлены на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конкретных проектов на Южных Курилах.

## Сахалин, азиатский чемпионат по хоккею

5월 1일 сахалин에서 아시안 컵 국제 아동 아이스하키 게임이 시작된다. 시합에는 일본, 한국, 중국과 러시아 등 9개 팀이 경쟁하게 된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의 <아드미랄>팀, 우수리스크의 <티그리>팀과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크리스탈리크>, <사할린스키에 아쿨리>팀의 선수들이 대표로 출전한다.

경기에는 2005-2006년생의 어린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참가한다. 아시안컵 경기 방식은 순환방식으로 진행되며 5일간 <크리스탈>스포츠회관과 <아레나-시티>빙상단지에서 36회의 경기가 펼쳐진다.

공식 개막식은 5월 1일 14시에 <크리스탈> 스포츠회관에서 열릴 계획이다. 입장은 자유(무료)라고 <사할린>스포츠클럽 홍보실이 전했다.

아시아컵은 이번이 처음이다.

### 5월 1일 경기 시간표

- 10:00 "아레나 마스체르 2008" — 일본I (<크리스탈>스포츠회관);
- 11:30 한국—"아드미랄" (<크리스탈>스포츠회관);
- 13:00 중국—"티그리" (우수리스크) (<크리스탈>스포츠회관);
- 14:30 일본 I — 일본 II (<크리스탈>스포츠회관);
- 16:00 "아드미랄"—중국 (<크리스탈>스포츠회관);
- 17:30 "아레나 마스체르 2008" — 한국 (<크리스탈> 스포츠회관);
- 19:00 "크리스탈리크" — "사할린스키에 아쿨리" (<크리스탈>스포츠회관).

##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йдет Детский кубок Азии по хоккею

1 мая на Сахалине стартуют игр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Детского кубка Азии по хоккею (Asia Kid Hockey Cup).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девять команд из Японии, Кореи, Китая и России. Нашу страну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ять хоккеисты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Адмирал"), Уссурийска ("Тигры")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ристаллик", "Сахалинские Акулы").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римут участие юные хоккеисты 2005-2006 годов рождения. Кубок Азии пройдет по круговой системе. За пять дней в ДС "Кристалл" и ЛК "Арена-Сити" состоятся 36 матчей.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турнира состоится в ДС "Кристалл" 1 мая в 14:00. Вход свободный,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ПСК "Сахалин".

Данный кубок пройдет впервые.

### Расписание матчей на 1 мая:

- 10:00 "Арена Мастер 2008" — Япония II (ДС "Кристалл");
- 11:30 Корея — "Адмирал" (ДС "Кристалл");
- 13:00 Китай — "Тигры" (Уссурийск) (ДС "Кристалл");
- 14:30 Япония I — Япония II (ДС "Кристалл");
- 16:00 "Адмирал" — Китай (ДС "Кристалл");
- 17:30 "Арена Мастер 2008" — Корея (ДС "Кристалл");
- 19:00 "Кристаллик" — "Сахалинские Акулы" (ДС "Кристалл").

(Сахалин주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 제19대 대통령 재외투표 관련 안내사항

1. 재외투표 기간은: 2017년 4월 27일 목요일 ~ 4월 30일 일요일입니다. 4일간이니 기간을 잘 지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표시간: 오전 8시~오후 5시

3. 장소: 사할린 영사출장소 (Yuzhno-Sakhalinsk, Lenin St., 283 B)

4. 준비사항: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입니다.

(주유즈노사할린스크 대한민국영사출장소 제공)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17 год.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1 месяц - 75 руб. 7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SAKH.COM БИЛЕТ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ы, в театр, кино Покупай онлайн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a href="mailto:skr@sakhalin.ru">skr@sakhalin.ru</a>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